



# 0:4 바르샤 충격패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 FC(PSG)와 FC 바르셀로나의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승리한 PSG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날 PSG는 앙헬 디 마리아의 멀티골과 올리안 드라슬러, 에딘손 카바니의 득점에 힘입어 바르셀로나를 4-0으로 대파했다. /연합뉴스

##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 파리 생제르맹 1차전 승리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클럽 FC바르셀로나가 'MSN 트리오'인 리오넬 메시와 루이스 수아레스, 네이마르 등 최강 공격 라인을 가동하고도 파리 생제르맹(이하 PSG)에 충격적인 0-4 패배를 당했다. 바르셀로나는 15일 열린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원정 1차전에서 '원발 달인' 앙헬 디 마리아의 2골 활약에 힘입은 파리 생제르맹에 0-4로 무릎을 꿇었다. 4점차 패배를 당한 바르셀로나는 다음 달 17일 홈구장에서 16강 2차전을 치른다. 하지만 최근 9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랐던 바르셀로나는 안방에서 5점차 이상으로 이겨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반면 지난해 프랑스 축구의 '트레블'(정규리그·리그컵·FA컵)을 달성했던 PSG는 다섯 시즌 연속 8강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바르셀로나가 볼 점유율에서는 57-43으로 앞서고도, 슈팅수 7-16, 유효 슈팅수 1-10으로 절대적 열세를 보인 빈공 탓에 분루를 삼켰다. PSG가 홈팬들의 응원 속에 강한 중원 압박으로 경기를 지배했다. 전반 18분 올리안 드라슬러가 프리킥을 얻어내자 디 마리아가 키커로 나서 바르셀로나의 오른쪽 골망을 꿰뚫었다. 전반 40분에는 드라슬러의 추가골이 나왔다. 2-0으로 앞선 후반에도 디 마리아가 해결사였다. 디 마리아는 후반 10분 원발 중거리 슈팅으로 골망을 출렁였다. 후반 26분에는 에딘손 카바니가 강한 오른발 슈팅으로 승리에 췌기를 박았다.

바르셀로나는 메시와 수아레스, 네이마르가 반격에 나섰다지만 PSG의 미드필드진기세에 놀려 이렇다 할 공격 기회를 잡지 못했다. /연합뉴스

## ‘2017 영·호남합동 동계등반’ 日 훈련 준비 착착

### 사전교육 받고 17일 출국

“빙벽은 오르때마다 빙질이 다르기에 항상 긴장해야 한다. 신중하게 오르며 다양한 동적들을 하다보면 요령도 생기고 빙벽등반의 매력에 빠질것이다.”

지난 14일 늦은 오후 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 내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사무실.

등반 경력 30여년의 오영개(전남대 76학번) 강사가 광주·전남등산학교 동계반에 등록한 전남대, 순천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송원대 산악부원들을 대상으로 동계등반에 대해 열띤 강의를 하고 있었다.

아이젠이나 피켈 등의 장비들을 몸에 맞게 개조해서 써왔다는 노(老)선배의 지식과 경험에 20대 초반의 학생들은 시종 일관 집중했다.

이들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나고야 야즈카다테 산 일원에서 열리는 ‘2017 영·호남합동 동계등반’에 참가하기 위해 사전 교육을 받고 있다.

제38회 광주·전남등산학교 동계반과 병행해 열리는 이번 합동훈련에 광주·전



영·호남합동동계훈련에 참가하는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소속 학생과 교관들이 광주 서구 풍암동 연맹사무실에 함께 모여 의지를 다지고 있다.

남연맹은 12명의 학생산악인과 5명의 훈련 교관이 참가한다.

이들이 훈련하는 곳은 일본 나고야에 위치한 야즈카다테산.

8개의 암봉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일본의 100대 명산에 속하는 곳으로 능선으로 뻗어 나간 등산로 주변에 크고 작은 자연빙벽들이 생성돼 있어 등반가들이 동계

훈련을 위해 즐겨 찾는다.

해발 2000m에 위치한 야영장에서 막영하며 러셀, 안자일렌 등의 설상등반법과 프랑크식등반기술, 프론티언팅등반기술 등의 다양한 빙벽등반법을 익힌다. 이후 최고봉인 아가다케(2,899m)로의 2박3일간의 산행을 통해 위급사항 등에 대처하는 실전훈련을 할 계획이다.

이들은 16일 오후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사무실에서 발대식을 연 뒤 17일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글·사진=김진수기자 jeans@

### 피츠버그 구단 “강정호 스프링캠프 정상 참가 불가”

음주 뺨소니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메이저 리그 강정호(30)가 스프링캠프에 정상적으로 참가하지 못한다고 피츠버그 파이리츠 구단이 공식 발표했다.

15일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에 따르면 피츠버그 구단의 프랭크 쿠넬리 사장은 성명에서 “강정호가 재판을 받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불확실하다”며 “이에 따라 스프링캠프에 언제 합류할지도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명한 점은 스프링캠프 시작 시점부터 정상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헌팅턴 단장 등이 현지 기자들과 질

의·응답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이처럼 구단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쿠넬리 사장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강정호가 한국에서 사태를 잘 해결하고 돌아와 2017시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 뺨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심리를 해서 양형을 다시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며 정식 재판을 넘겼다. 그는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식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 장원준 WBC 평가전 1차전 선발 등판

‘빅게임 피쳐’ 장원준(두산)이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야구 대표팀의 첫 번째 평가전에 선발 등판한다.

김인식 WBC 대표팀 감독은 15일 일본 오키나와 구시가와 구장에서 열린 대표팀 훈련을 앞두고 ‘평가전 투수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애초 오키나와 훈련 기간에 3차례 평가전을 치르기로 했던 대표팀은 투수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LG 2군과 평가전을 취소했다. 19일 요미우리전과 22일 요코하마전만 치른다.

김 감독은 “요미우리와의 경기는 투수 6명으로 치를 생각이다. 장원준이 선발로 등판해 2이닝을 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원준은 양현종(KIA)과 대표팀 원투 펀치를 이룬다. 2015, 2016년 포스트시즌과 2015년 프리미어 12에서 과시한 ‘단기전에 강한 모습’이 높이 평가받는다. 장원준에 이어 장시환(KT)과 차우찬이 2이닝, 우규민·심정민(이상삼성), 원종현(NC)이 1이닝을 맡는다.

차우찬은 이대은(경찰청)의 몸상태에 따라 보직이 확정될 방침이다. 차우찬은 선발, 중간, 마무리를 모두 경험한 선수다. 중간 계투로 긴 이닝을 소화하는 능력도 탁월해 투구 수 제한이 있는 WBC에서 활용도가 크다. 22일 요코하마전 선발은 양현종이다. /연합뉴스

## 김호령, 방망이 좀 매서워졌나

### 대만 캠프 끝내고 오키나와 캠프 합류

‘독학생’ 김호령의 테스트가 시작됐다.

15일 KIA 타이거즈의 스프링캠프가 차려진 일본 오키나와에 반가운 얼굴이 등장했다. 대만 퓨처스 캠프에서 시즌 준비에 나선 김호령이 김기태 감독의 부름을 받고 1군 캠프로 건너온 것이다.

김호령은 팀에 합류하자마자 차탄구장에서 진행된 일본 주니치 드래곤즈와의 연습경기에 토타 자 겸 겸수로 선발 출장했다.

올해로 대졸 3년 차인 김호령은 지난 2년 특급 수비로 외야의 샛별로 등극했다. 지난 시즌 초반에는 한층 매서워진 타격 실력도 보이면서 타석에서의 비중도 커졌다. 하지만 여름 고비를 넘지 못하면서 한계를 노출하기도 하는 등 지난 시즌은 ‘절반의 성공’이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난 뒤 ‘중장거리 타자’라는 목표를 내세워 자율적으로 변신을 시도해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김호령의 도전이 시작됐다. 김호령의 요청에 김기태 감독이 기회를 주기로 하면서 마무리 캠프에 이어 스프링 캠프 명단에서 김호령의 이름이 제외됐다.

올 시즌 외야는 KIA의 최고 격전지다. 4번 타자 최형우와 공·수·주에서 모두 눈길을 끄는 새 외국인 선수 버나디나, 무서운 상승세의 노수광 등이 지난 시즌 출발 때와는 다른 새 전력이다. 수비에서 만큼은 김호령이 우위에 있는 만큼 외야 경쟁은 이번 캠프의 관심사 중 하나다.

김호령의 오키나와 합류 후 첫 경기 성적은 4타수 무안타, 두 차례 출루에는 성



공했지만 상대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 첫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난 김호령은 두 번째 타석에서 유격수 실책으로 1루 베이스를 밟았다. 6회 세 번째 타석은 투수 땅볼, 9회 마지막 타석은 3루수 실책으로 출루했다.

‘독학생’ 김호령이 수비가 아닌 공격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남은 연습 경기의 관전 포인트다.

한편 KIA는 14일 야구르트 스칼로스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습경기 일정에 돌입했다. 야구르트에 4-6으로 졌던 KIA는 주니치전에서도 0-5패를 기록했다. KIA는 16일 나고야구장으로 가 니혼햄 파이더스와 캠프 세 번째 연습경기를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